

보살의 길

2006년 겨울호 제2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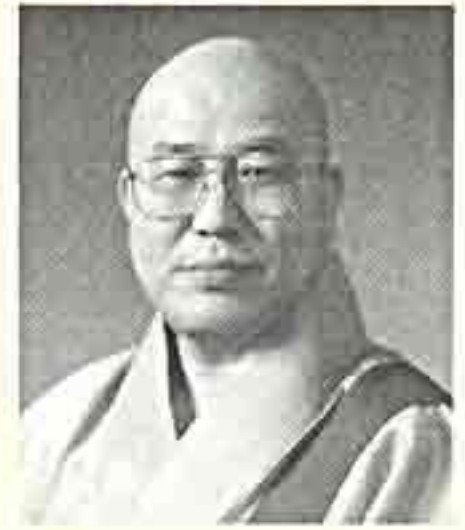


12월 15일 후원자·자원봉사 송년회



사회복지법인 예명복지원
예명불교양로원

노인을 위한 정해년으로...



박현성(재근) 원장

한해가 속절없이 지나갔습니다. 무릇 시간은 세상만사를 기다려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못 다한 일들과 씻어내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들이 후회스럽고 아쉬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집착하여 미래를 간과하고 새해를 맞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과 시행착오는 미래를 연계하는 젓줄로 삼아 새해를 살아가는데 스승으로 대비하여 꿈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나이 한살을 덧붙인다는 것은 속된말로 숫자에 불과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늙어 갑니다마는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하고 생활의 활력소를 찾도록 노력한다면 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는 이러한 삶이 필요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늙음은 인생의喜怒哀樂(희노애락)을 포용한 삶의 철학적 進展(진전)입니다. 우리는 노인들을 다음과 같이 젊은이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노인은 오래된 청년일 뿐이다. 발효가 잘 되어 부패하지 않는 발효청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노인은 죽고 남은 찌꺼기가 아니라 후손들에게 귀중한 가치를 전하기 위하여 남겨진 貴人(귀인)들 이라고 했습니다. 이럴진대 어찌 우리가 노인들에게 무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경노사상의 좋은 풍속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실천에 옮겨 노인공경의 바른생활이 후손에게 이어져 우리의 미풍양속이 전해져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회나 국가에서도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정책으로 개발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우리나라 가정의 노인들이 적은 비용으로 전문시설을 이용케 하여 당해 노인과 그 가정에 고통과 갈등요인을 덜

어주고 초고령 사회의 도래를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시책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 노인복지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전제가 될 것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은 힘든 사업입니다. 국가가 모두를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동감해야 하며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비의 손길이 내밀어져야 비로소 전자의 제도가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으로 노인복지마인드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운영은 법에 맞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국가시책에 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정착 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많은 가정과 노인들의 갈등과 고민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해년에는 이러한 노인복지 정책이 시행되는 첫해가 됩니다,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옷을 제대로 입듯이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유지하여 미래의 노인복지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는 가정과 사회가 다같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혜명양로원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후원자님들의 성의에 힘입어 무난히 한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어찌 다할 수 있겠습니까!

정해년 365일은 날마다 노인의 날이 되게 하여 이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들과 병고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줘야겠습니다. 이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분과 많은 도움을 주신 후원자님, 그리고 혜명양로원의 식구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로 올 한해는 건강하시고 만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정해년 원두에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묵향법사(찬불가 봉사)

불 · 법 · 승,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불교의 가장 큰 가르침은 자비의 마음입니다.

자비란 자기를 위함이 아니요.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불교는 자비가 근본이므로 부처님 말씀처럼 불공은 남을 돕는 것입니다. 일체중생을 위해서 일체중생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참회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불교의 자비는 또한 나와 남을 가르는 분별을 버리는 것입니다. 극락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남을 나처럼 소중히 여기고 남의 종교를 나의 종교처럼 존중하고 남의 나라를 내 나라로 생각하고 아픈 사람을 내 몸처럼 보살피는 것입니다. 극락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남을 나처럼 소중히 여기는 한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불교를 따르는 사람의 근본이며 사명이며 본분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이면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부처님 오늘도 지혜롭게 정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의 향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소서! 라고 발언합니다.

혜명양로원에 인연이 되어 봉사한지도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혜명양로원에 살고 계신 불자들을 위해 봉사하러 찾아뵙는 날이면 저에게는 늘 보람과 감사와 기쁨의 나날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찬불가 음성공양을 매달 넷째 주 토요일 날 스님의 집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를 저와 함께 봉사해 주시고 빛내주신 지오스님, 원경법사님, 머루와 다래 회장님 불교자원봉사 혜명회 합창단 불자들의 큰 신심과 헌신적인 봉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마음에 힘입어 정해년에도 전 보다 더 열심히 보살행을 실천하는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의 크신 가피를 더 많은 불자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어 모든 마음먹은 대로 소망하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를 받아 앞으로 새롭게 신심내어 부처님의 가피 가득 하시길 발원하옵니다.



어르신들 한분 한분이 생각납니다.

정 운 순 실습생(백산대학교 대학원)

양로원! 양노원이 언제 양로원으로 변했냐며 찾아간 곳. 거긴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같은방 식구들끼리, 연장자를 우대하며 서로 돌보고 아끼는 가족이 있었다.

25년전 한 양로원을 들린적이 있었는데 젊어서 인지 그들이 한 때 방탕을 했거나, 게을렀거나,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 같아 떨떠름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실습을 하고자 이제 어르신들을 다시 만나게 되니 그때 그분들과 같이 그렇게 어둡지도 않았고 생을 포기한 상태에서 꾸그러든 마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 아니었다. 젊으시다고나 할까! 그 분들 보다 20세는 더 젊게 느껴졌다. 수명이 길어서일까 시샘도 있고 너그러운 마음도 있고 협동심도 아직 잃지 않으셨다. 직원들의 배려와 각별한 보살핌의 덕분이라고 생각된다.

시어머님이 워낙 화통하시고 이해심이 많으셔서 우리 어머님이 최고인줄 알았는데 여기계신 어르신들 못지않으셨다. 열심히들 살아오신 당당함일까 그러나 공동생활이 땃땃하지 못하다는 어르신들은 본인이 여기까지 오게 된 본인들의 처지에 인생의 허무를 느끼신단다.


짧은 실습시간이지만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자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실수를 하기도 했다. 80년 90년 세상살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목

욕을 시켜드리면서, 또 면담을 하며 들은 어르신들의 우여곡절 많은 인생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외모야 허리 굽고, 구부정하고, 관절염 없으신 분 아니 계시고, 누군가 보고 싶은 마음에 많은 사람과 함께 생활하시면서도 허전해 하시는 분들, 하지만 슬며시 내미는 손에는 간식을 모았다가 주시는 따뜻함이 있으시다.

내가 어찌 그것을 받을수 있겠는가! 뿌리치는 손길을 마음이라며 도리어 화를 내시는 어르신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누군들 지금 여기 있지 않다 하여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편하게 사는 것도 이분들의 고생이 받혀주셨는지 모른다.

목욕을 시켜드릴때도 성심껏 헤드리고 손발톱을 깎아 드리면서 아직 살아계신 친정어머니께 시집만 알았던 그동안 잘못이 반성도 된다. 뵈게 된 직원들 어떻게하면 어르신들을 더 편히 모실까? 어떻게하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시게 할까? 매사에 어르신을 위하시는 직원들을 보면서 나만 위해 살아온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신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병원에 계신 박봉선어르신 쾌차하시고 어르신들 통증없이 지내시고 즐겁운 시간 많이 만들어 마음 편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자 아자 헤명양로원. 

혜명한마당



| 11월4일 독감예방접종 |

매달 방문진료를 해주시는 금천구 보건소에서 지난 11월 달엔 독감예방 접종을 하여 우리어른들이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방문 |

마포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포구의 경로당 임원진이 우리양로원을 방문하여 준비해온 다양한 게임으로 우리어른들과 오후한 때 단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방문하여 주신 경로당 임원진에 감사드립니다.



| 11월28~29일 김치 |

양로원에서 1,000포기 김장을 했습니다. 금천구 시흥2동 적십자회원님과 안양군부대장병들이 양일간 봉사를 하여 수월하게 김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맛있게 익었는지 김치를 먹을 때 마다 봉사해주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 행복병원 |

대학생 연합 씨클 행복병원에서 매달 봉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력봉사도 해주시고 어른들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도 가져주셔서 알찬 봉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 12월22일 바레공연 |

신나는 예술기행에서 방문공연을 해주셨습니다. 인형같은 발레단이 나올 때 마다 어른신들이 연신 탄성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볼거리를 어른들에게 즐거움을 주신 장선희 발레단에 감사드립니다.



| 반고림복합팀의 케이크만들기 |

박은주 자원봉사자가 재료를 준비하여 오셔서 어른들 30여명이 케익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처음 해보셔서 어설픈 솜씨였지만 완성품만 보시다 손수 케익을 만드니 모두 즐거워 하셨습니다. 우리어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박은주선생님과 색칠봉사팀에 감사드립니다.



| 찬불가 배우기 |

매월 넷째주 토요일엔 찬불가 봉사단이 단복을 곱게 차려 입고 오셔서 우리어른들과 찬불가를 부르십니다. 목소리가 안나온다며 말씀들을 하시지만 다른 어떤 노래보다 더 힘차게 부르시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 감사함을 느낍니다.



| 12월15일 송년회 |

자원봉사·후원자 송년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며 장기봉사자에게 감사장전달과 축하공연, 다과회로 이루어진 행사는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바쁜 생활속에서도 늘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시고 봉사하시는 여·러·분·가족모두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11월14 올림픽기념관 견학 |

어르신 12명이 올림픽기념관과 종이미술관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조금은 추운날씨였지만 올림픽 당시의 추억을 얘기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혜명동정

◎ 시설개요

- 시설명 : 혜명양로원
- 운영재단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 개원일 : 1982년 4월 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재근 (현성큰스님)
- 정원 : 64명 (남: 28명/ 여: 36명)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

◎ 입소대상

■ 무료입소

- 입소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입소신청 : · 거주지동사무소(상담 및 신청)
 · 관할구청(심사 및 의뢰)
 ·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 양로원(상담 및 입소 결정)

◎ 현재 입소인원 (12월 31일 현재)

- 총 63명
- 할아버지 : 27명
- 할머니 : 36명

◎ 직원 현황

- 총 16명
- 원장1명 / 사무국장 1명 / 시설과장 1명 / 간호사 1명
- 영양사 1명 / 사회복지사 1명 / 생활지도원 5명
- 위생원 1명 / 서무 1명 / 조리원 3명

2006년 하반기 후원금 수입·지출내역 (2006년 7월~12월)

수입		지출	
후원금종류	금액	지출내역	금액
지역사회후원금품	16,056,650	사무비	7,674,046
		사업비	7,299,950
		프로그램사업비	1,551,551
합계	16,056,650	합계	16,525,547

■ 12월 27일 노인생애체험



양로원에 입소해 계신 어른들을 좀더 이해하고자 직원들이 노인생애체험을 다녀왔습니다. 다리도 불편하고 눈도 보이지 않고 생각했던 것 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어른들은 단순히 불편하다는 수준이 아니 아픔까지 동반되니 생활하시기에 얼마나 힘들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11월 6일 직원소방교육



직원소방교육을 했습니다. 소방교육을 통해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노출되어 있는 위험요소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는 기회였습니다.

자원봉사자

2006년 10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f.g.t.g(단체봉사팀), 동국대한방병원, 이승희, 김향신, 박은주, 임진빈, 주금순(밑그림색칠), 문덕녀, 홍순자, 이미애, 박상화(대림미용실), 안양교도소이발, 영등포교도소이발, 금천문화원무용반, 임호순 외 6명(치과진료), 김미경(종이접기), 금천보건소, 불자연수지침팀(박경희, 민귀남), 윤순재(사랑의모임국악팀),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그신대침술봉사팀, 조기환, 고다현(물리치료), 대한적십자사시흥동 회원님들, 임지현(건강체조), 백산초등학교6학년, 백련사신도님들, 박성은, (미술활동), 천종임(민요), 기업은행강서지역직원들, 국민의료보험공단, GS건설, 김하늘(차밍댄스), SK네트웍스, 묵향법사, 지영옥, 김상영, 신세왕, 최미자, 이순교, 김덕문, 정지윤, 황득효(찬불가봉사팀), 손정숙, 민영필, 배현순, 홍은석, 마정임, 이호경, 황숙희, 전별문, 김영희(반야회), 행복병원, 우담바라, 김도연

후원자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서는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물 품 후 원

정혜사, 백련사, 사랑의국민운동실천본부, 인천보살, 금천푸드뱅크, 영등포교도소, 홈플러스, 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문재호, 금천구청, 정준산업, GS건설, 공동모금회, 금천문화원, 이재임, 현성정사, 해명보육원, 찬불가봉사팀, SK네트웍스, 범죄예방위원회, 대림아파트부녀회, 재향군인회, 대한어머니회, 기업은행, 밑그림색칠팀, 이택종, 오픈텔레콤, 행복병원, 청담복지관, 서울시청, 백산초등학교, 금천구의회, 그외여러 익명의 독지가님들

지 로 후 원

임옥수 150,000	구충수 150,000	구희관 20,000	이에자 30,000	구봉순 10,000	은선사 10,000
민병천 40,000	문금자 30,000	이정호 5,000	한독병원 60,000	백승풍 20,000	안정희 20,000
고병득 30,000	윤재순 60,000	구봉순 30,000	장정애 30,000	서현종 50,000	박영옥 10,000
구산 5,000	이은정 10,000	윤영미 5,000			

현 금 후 원

대림라이온스 600,000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185,000	금천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300,000
권기상 200,000	임정민 30,000	국영호 400,000
롯데마트 37,300	박성수 90,000	최형기 30,000
임정민 30,000	반야행가족 100,000	금천우체국 200,000
금천구청 700,000	어울림봉사회 100,000	박현규 100,000
전수일 100,000	김현준 100,000	청담어린이집 72,540
서울시 600,000	금천경찰서 300,000	까르푸 32,880
김기영 300,000	고영준 200,000	

♥♥♥ 늘 양로원을 잊지 않고 정성껏 후원금을 내주시는 후원자님, 어르신들의 생필품, 간식, 부식등 후원품을 가져다 주시는 후원자님, 또 하루 일과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자원봉사님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가정 내 두루 건강하고 화목하시기를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 ▶ 모집대상 :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 모집내용 : 노력봉사 - 어르신 숙소 청소, 목욕, 식당 보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치매예방·여가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의료봉사 - 의료 관련 서비스 실시
정서지원봉사 - 말벗, 책 읽어드리기, 무연고 어르신 결연
- ▶ 후원내용 : 현금 후원 - 일반후원 1,000원 이상, 결연후원 5,000원 이상
물품 후원 - 생활에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쌀 등
식품 후원 -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신선한 반찬류 및 간식류(과일, 빵 등)
가전 후원 - 대형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재봉틀, 카세트, 카메라 등
생필품후원 - 락스, 피죤, 옥시크린, 각종 세제류

☎ 지로번호 : 7655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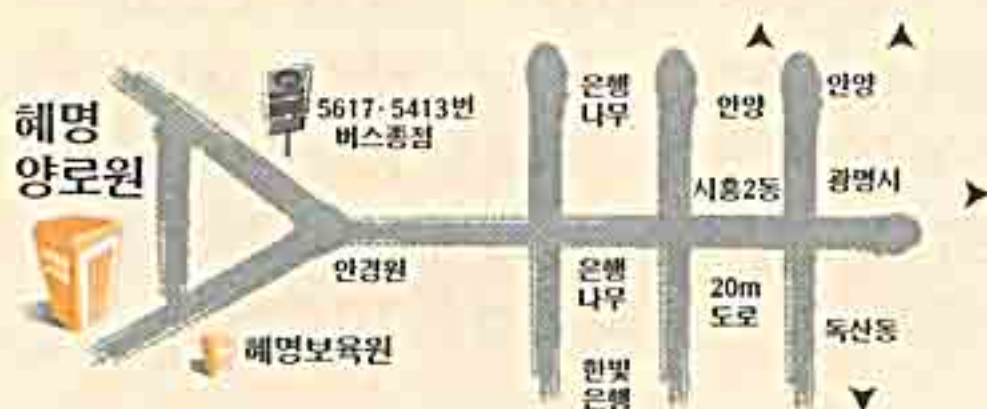
☎ 우리은행 : 1005-901-011284

☎ 예금주 : **혜명양로원**

♣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

1. 혜명양로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혜명양로원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로원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시흥역 마을버스금천01번 범일여객 종점 하차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역 5617번 범일여객 종점 하차
신림역 5413번 종점 하차

양로원 홈페이지

www.hmtown.or.kr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양로원

발행인 : 박재근(현성 큰스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번지

연락처 : TEL 02)802-6765

FAX 02)892-2068